

■ Artist Profile

학력

2009 동신대학교 사진영상학과 졸업

개인전

2025.09 2025 하정웅미술관 광주청년작가초대전, 광주시립미술관 하정웅미술관, 광주
2024.11 푸른 낮과 붉은 밤", 스페이스22, 서울
2023.10 Boundary, 서학동사진미술관, 전주
2023.07 푸른 낮과 붉은 밤", 미술중심공간보물섬, 경산
2021.11 Boundary_어떤지점, 류가현, 서울
2021.11 Boundary_어떤지점, 예술지구_p, 부산
2020.05 Boundary, 담빛예술창고, 담양
2019.09 Boundary, 롯데갤러리, 광주
2018.12 Episod_JP, 뽕뽕브릿지, 광주
2018.06 경계, 샤우롱아트스트 빌리지, 타이완
2016.10 화두를 던지다, 갤러리 처음, 광주
2015.10 아트레지던시 페스티벌, 구 군산시청, 군산
2015.08 boundary, Zendai Contemporary art space, 중국 상하이
2015.04 조립되지않은레고, 갤러리 미테, 광주
2014.06 경계, 무각사 로터스갤러리, 광주
2013.08 경계, 생각상자갤러리, 광주
2011.04 인사아트기획전"에피소드, 인사아트센터, 서울
2008.06 몽유야담, artbit갤러리, 서울
2007.07 극락강, 사진쟁이 1019, 서울
2006.08 잘놀다오겠습니다", 3983, 화천

그룹전

2025.09 포스트메모리 기획전'기억이 나를 본다', 무안군오승우미술관, 무안
2025.09 달빛연대프로젝트@광주: 코발트, 은암미술관, 광주
2025.06 Occupy : 우리는 연결되고, 점유한다, 전남도립미술관, 광양
2025.06 광주와 근대정신, 광주시립미술관 하정웅미술관, 광주
2024.09 광주비엔날레 광주파빌리온<무등:고요한 긴장>, 광주시립미술관, 광주
2024.08 광주시립미술관 교류전'서로 엮은 이야기', 사키마미술관, 오키나와
2024.05 무등 샤워, 드영미술관, 광주
2024.05 모두가 평등한 세상을 위하여, 동곡미술관, 광주
2023.11 하정웅 미술관 광주청년작가전 '하이퍼이미지 시대의 미술', 광주시립미술관하정웅전시장, 광주
2023.11 우리가 만나는 곳(Here Where We Meet), it's ready, 인도네시아
2023.11 다른 듯 같은, 호랑가시나무, 광주
2023.10 재현과 상상의 경계, 함평군립미술관, 함평
2023.06 뜻밖의 만남:인카운터(Encounter), 성남아트센터 갤러리808, 성남
2023.04 나아가는 내일', 미로센터, 광주
2023.05 언리미티드±30: 기대되는 컬렉션, 신세계갤러리, 광주
2022.11 쓰임새와 아름다움, 롯데갤러리, 광주
2022.10 베니스비엔날레 병행 전시 "한지 하우스 프로젝트2", 팔라조 콘타리니 폴리낙, 이탈리아
2022.12 따듯한 그늘, 갤러리 꽃피다, 서울
2022.09 Multi-R.P.G, 광주문화재단 미디어338, 광주
2022.09 HOPPY TOGETHER, 예술지구P, 부산
2022.09 사진으로 배틀하자, 루시다갤러리, 진주
2022.06 2022 한국민중미술 특별전<다면체 미로 속의 진동>,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주
2022.01 롯데갤러리 신년기획전"호연지기", 롯데갤러리, 광주
2021.12 4.3과 친구들, 마루아트센터, 서울
2021.10 부산레지던시 대전, f1963, 부산
2021.10 광부, 호랑가시나무아트폴리곤, 광주
2021.10 거리의기술들, 예술지구_p, 부산
2021.09 거리의기술들, 메이홀, 광주
2021.09 개콘이 없어서서 그래, 소촌아트팩토리, 광주
2021.04 광주비엔날레 특별전"May to Day", 구국군통합병원, 광주
2020.12 또 다른 광주, 신세계갤러리, 광주
2020.12 아시아 국제사진공모전 젊은 작가 초대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주
2020.12 바위의 시간을 걷다, 우제길미술관, 광주
2020.10 기억의 자리, 전일빌딩245 갤러리, 광주
2020.07 영호남청년작가교류전, 최북미술관, 무주
2020.05 2020 ACC CONTEXT <연대의 홀씨>,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주
2020.05 각자의시선, 호랑가시나무 아트폴리곤, 광주
2020.05 직시,역사와 대면하다, 무등갤러리, 광주
2019.05 CONTEM-PORARY YOUNG ART IN NAMDO 2019, 담빛예술창고, 담양

2019.05 각자의시선,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주
 2019.04 박제된기억, 은암미술관, 광주
 2018.11 Tainan International Foto Festival, Soulangh Artist Village, 대만
 2018.11 Find Inspiration Of Innovation, 혁신센터, 춘천
 2018.09 2018광주비엔날레 파빌리온 프로젝트, 이강하미술관, 하하우스, 광주
 2017.08 요코하마 코가네초 바잘, 코가네초, 일본
 2017.07 청년의서, 광주시립미술관사진전시관, 광주
 2017.04 some point, 뽕뽕브릿지, 광주
 2016.10 최광호,이세현2인전, 돌, 반도갤러리, 서울
 2016.09 광주비엔날레 포트폴리오 리뷰전, 무각사, 광주
 2016.09 광주비엔날레 특별전 "점화, 뽕뽕브릿지, 광주
 2016.01 보고전, 갤러리생각상자, 광주
 2015.12 타임머신타고 고고씽, 광주 시립미술관어린이갤러리, 광주
 2015.09 세시봉전, 다다갤러리, 광주
 2015.04 nighty boys of colr, 갤러리아크, 광주
 2014.12 V-Party Vol.5, 신세계갤러리, 광주
 2014.03 옥상위 정치, 갤러리 미테, 광주
 2014.01 가깝고도 먼 젊은작가, 유스퀘어문화관, 광주
 2013.11 직조된 제현, 은암미술관, 광주
 2013.12 V-Party Vol.4, GALLERY D, 광주
 2013.09 기획전시, 은암미술관, 광주
 2013.06 한평전시, 한평갤러리, 광주
 2013.05 green art, 소아르갤러리, 화순
 2013.01 두드리다, 신세계갤러리, 광주
 2012.09 반하다, 예술의 거리 공가, 광주
 2012.04 광주비엔날레 포트폴리오공모전, 비엔날레, 광주
 2012.12 V-Party Vol.3, 쿤스트라운지, 광주
 2012.07 젊은그대, 가메일식, 광주
 2012.06 DA DAK DAD AK, ARTERY, 태국
 2012.06 한평전시, 한평갤러리, 광주
 2011.12 V-Party Vol.2, GALLERY D, 광주
 2009.12 MISSEMMA Project-Nothing&Everything, 가나아트스페이스, 서울
 2009.11 MISSEMMA Project-Nothing&Everything, 인사아트센터, 서울
 2009.02 이성, 감성, 열정 게이트 1주년 기획전, 게이트갤러리, 서울
 2008.11 동신대학교 졸업전, 갤러리 룩스, 서울
 2004.05 위도, 남봉갤러리, 광주
 2004.03 위도, 사진쟁이1019, 서울, 남봉갤러리, 광주
 2004.06 RGB전, 사진쟁이1019, 서울
 2003.11 8.15 동행, 갤러리1019, 서울
 2003.10 해안선2003, 갤러리1019, 서울
 외 다수

수상 및 레지던시

2025 제 31회 광주미술상
 2007 제 6회 1019사진상
 2024 광주비엔날레 광주파빌리온 작가 선정, 광주비엔날레, 광주, 대한민국
 2023 Ruang MES 56 레지던시, 족자카르타, 인도네시아
 2022 베니스비엔날레 병행전시 한지하우스 프로젝트II 참여 작가, 베니스, 이탈리아
 2021 예술지구p 레지던시, 부산, 대한민국
 2021 광주비엔날레 특별전MAY TO DAY 작가 선정, 광주비엔날레, 광주, 대한민국
 2018 광주비엔날레 필리핀 파빌리온 작가 선정, 광주비엔날레, 광주, 대한민국
 2018 "Tainan International Foto Festival" 작가 선정, Tainan International Foto Festival, 타이난, 대만
 2018 대만 타이난 샤우롱아티스트빌리지 국제 레지던시, 광주시립미술관, 타이난, 대만
 2017 일본 요코하마 코가네초바잘 국제 레지던시, 뽕뽕브릿지, 요코하마, 일본
 2015 중국 상하이 히말라야미술관 국제 레지던시, 광주시립미술관, 상하이, 중국
 2011 광주 대인예술시장 문화레지던시, 광주, 대한민국
 2010 광주 대인예술시장 레지던시작가, 광주, 대한민국

작품소장

2021 경계, 전남도립미술관, 광양
 2020 경계, 국립현대미술관(미술은행), 서울
 2020 경계, 광주시립미술관, 광주
 2018 에피소드 남도시리즈, 광주광역시청, 광주
 2016 경계, 광주시립미술관, 광주
 2014 경계, 무각사 로터스갤러리, 광주
 2014 경계, 광주시립미술관, 광주
 2014 경계, 갤러리생각상자, 광주
 2011 에피소드, 인사아트센터, 서울

이메일 : 802564s@naver.com

연락처 : 010.2606.1516

“역사가가 세상에 제공하는 이미지는
백미러로 보이는 이미지다.”

(존 루이스 개디스,
《역사의 풍경-역사가는 과거를 어떻게 그리는가》)

김병수(한국미술평론가협회 회장)

청춘의 감각과 예술의 기원

망설였다. 글의 시작을 “대학교 시절 밤에 도시를 거닐며 플래시를 터트려가며 직관적으로 찍어낸 풍경들”로 시작하는 것에 대하여. 그러나 사진가에게 청춘은 단지 시간의 이름이 아니다. 사물과 빛, 어둠과 형체가 맺는 첫 번째 관계의 순간들로 이루어진다. 다시 말해서 세계를 응시하는 첫 시선이 만들어지는 내밀한 장소라는 의미이다. 이세현의 학부 시절 연작 《몽유야담》은 아직 역사의 장소에 다가서기 전, 그가 혼자 밤거리를 헤매며 카메라를 들었던 청춘의 자국이다. 흐린 하늘을 가로질러 던져진 붉은 토마토, 콘크리트 계단 위를 응시하는 고양이, 꽃에 가려진 소년의 옆모습, 무심히 지나가는 사람들의 붉은 그림자, 그리고 어둠 속에 떨어지는 눈발과 나뭇가지들. 이 이미지들에는 아직 ‘기억’도 ‘장소성’도 없다. 하지만 그 안엔 분명 사진을 통해 세계에 말을 거는 한 젊은 예술가의 감각과 사물을 프레임에 삽입하는 기투(project)의 몸짓 그리고 빛을 감정의 구조로 받아들이는 시각적 직관이 자리한다. 이처럼 이세현의 청춘은 지금의 작업으로 곧장 이어지지는 않지만, 그 어딘가에서 오늘의 사진적 실천을 가능케 한 감각의 기원으로, 혹은 부지불식간의 미학적 맹아로 존재해 있었다. 예술은 그렇게 기억보다 먼저, 시간보다 먼저 시작된다. 과거는 관찰될 수 없다. 우리는 그것들에 관해 들었거나 읽었을 것이고, 그것들을 기억하고, 그것들의 유해를 정리하거나 회고적으로 그것들이 어떤 것이었는지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다시 돌아온 이러한 기억의 형태 중 어느 것도 과거를 대표하지 않는다. 우리가 그것에 대해 알고 상상하는 것은 이야기, 문서, 이미지, 물질적 유물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알게 된다. 그런데 재건된 유물은 단편적이고 흐릿하며 미완성이다. 잃어버린 시간을 찾는 조각이라는 의미다. 이는 자신의 전기적 기억뿐만 아니라 역사 과학에 대한 기억에도 적용된다. 미셸 드 세르토는 “나는 단순히 역사적 텍스트를 생산한다는 의미에서 역사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며, “내 작업을 통해 이제는 죽어서 살아있는 형태로 접근할 수 없게 된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고 덧붙였다. 드 세르토에 따르면, 역사적 활동의 시작은 전해져 내려온 것의 활력, 풍요로움, 현존이 아니라 과거가 회복 불가능하다는 통찰이다. 다시 말해서 부재는 역사적 담론을 구성한다. 미학을 시간의 매개된 경험으로 생각하는 것은 중요하다. 왜냐하면 미학은 관람객/참여자에게 항상 매개되고 시간적이며 덧없고 따라서 주관적인 ‘현재’를 성찰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기 때문이다. 더 정확히는 그 이해하고 경험하는 방식을 살펴보게 한다는 사실이다.

기억의 미학, 질문하는 사진

이세현의 작업은 단순한 기록사진을 넘어, 역사적 장소에서 벌어진 비극의 흔적을 ‘기억의 미학’으로 전환하는 독창적인 실천이다. 그의 사진은 다음과 같은 층위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역사란 우리에게 단순히 지나간 시간이 아니다. 현재를 비추는 어두운 거울이며 아직 해석되지 않은 질문이다. 사진작가로서 이세현은 이 거울을 마주보는 사람이다. 그는 폐허가 된 장소에서 빛을 켜다. 잊힌 과거를 호출하고 침묵하는 공간에 질문을 던진다. 이세현의 사진은 기억을 환기하는 장치이자, ‘시각적 역사의학(歷史醫學)’이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시각예술을 통해 역사적 상흔을 진단하고, 가시화하며, 성찰의 계기로 제시하는 사진 예술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의미이다. 이세현의 사진적 탐사는 한국 근현대사의 비극적 현장을 향한다. 노근리, 거창, 옛 505보안부대, 국군광주병원, 코발트 광산, 곤을동, 그리고 오키나와의 토도로키 동굴까지. 작가는 이들 장소를 단순히 ‘기록’하지 않는다. 그는 폐허의 구조물 위에 조명을 설치하고, 인공의 빛으로 흔적을 감싼다. 어둠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어둠 안에 있는 시

간을 꺼내 보이는 행위이다. 이 작업의 핵심은 장소의 역사성과 시각적 개입 사이의 긴장에 있다. 이세현의 사진은 '기념사진처럼 찍힌 역사'가 아니라 질문을 내포한 이미지들이다. 그는 때로 카메라 프레임 안에 '던져진 돌'을 삽입한다. 이 돌은 감시자, 증인, 또는 작가 자신의 몸짓으로 해석될 수 있다. 사진 속 돌은 시간의 층위를 깨우고 과거에 대한 관조를 오늘의 시선으로 끌어올린다. 특히 <푸른 낮 붉은 밤> 연작은 색채의 대비를 통해 공간의 감정 구조를 시각화한다. 밤의 어둠 속에 떠오르는 푸른 빛은 죽음 이후의 기억이고, 붉은 색조는 폭력의 잔상이다. 공간은 비어 있지만 이미지는 가득 차 있다. 이 비물질적 충만함은 바로 '부재의 현존'—역사미학의 본질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작가가 주도해온 프로젝트명 <Boundary>, <Episode>, <상흔> 또한 의미심장하다. '경계'는 현실과 기억 사이, '에피소드'는 개인의 경험과 공적 기록 사이, '상흔'은 이미지와 트라우마 사이의 관계를 탐색한다. 그의 작업은 이 경계들 위에서 균형을 잡고 선다. 사진이란 본래 지나간 시간의 정지화이다. 그러나 이세현의 사진은 오히려 '현재화된 과거'를 만든다. 그는 카메라로 역사를 재현하지 않고, 재현된 역사의 윤곽을 다시 질문한다. 따라서 그의 사진은 다큐멘터리인 동시에 에세이이며, 시각적 사유이자 사회적 성찰의 장이다. 이세현은 묻는다. "그들은 왜 잊혀졌는가?", "그 자리는 왜 비어 있는가?", "기억은 누구의 몫인가?" 그리고 그는 말없이 대답한다. 이미지로. 침묵의 기록으로. 사진이라는 느린 시간의 예술로. 사진은 기록이지만, 동시에 응시하게 하는 질문의 장이며, 빠르게 흘러간 역사를 천천히 다시 살아가게 하는 윤리적 미학이다.

장소와 상흔, 이미지의 물리적 개입

이렇게 "역사는 부재를 다루는 기억의 재구성"이라는 핵심 테제를 미학적, 인식론적 관점에서 정리해볼 수 있을 것이다. 시간의 상흔을 향한 시각적 개입. 이세현의 사진 작업은 역사적 장소에 대한 시각적 사유이자, 존재하지 않는 과거와의 관계 맺기이다. 그는 유적처럼 남은 근현대사의 현장에 직접 개입하여 카메라 앞에 두 개의 시간을 병치한다—과거의 상흔과 현재의 시선. 이로써 사진은 사건의 '기록'이 아니라, 사유의 장으로 변모한다. 이 지점에서 이세현의 사진은 단순한 다큐멘터리와는 결별한다. 그는 이미지의 언어로, 회복 불가능한 과거를 성찰 가능한 현재로 호출한다. 1. 경계로서의 장소 - <Boundary>와 역사적 장소성. <Boundary> 시리즈에서 작가는 군사적, 정치적 폭력의 공간(예: DMZ, 노근리, 505보안부대, 군함도 등)을 촬영한다. 그가 택한 장소들은 국가적 서사의 주변에 밀려나 있었고, 때로는 의도적으로 지워진 장소들이다. 이세현은 이러한 공간을 기념사진처럼 정면에서, 고요하게 찍는다. 그러나 이 사진에는 '기억'이라는 내러티브가 아니라 '질문'이 작동한다. 가령 <Boundary_DMZ>는 자연과 군사적 폐허가 공존하는 모순적 풍경을 드러낸다. 앞이 무성한 풀숲 뒤로 철조망이 나타나는 장면은 미학적 조형성을 획득하는 동시에, 전쟁의 잔재가 일상에 은폐되어 있다는 사실을 조용히 고발한다. 여기서 '경계(boundary)'란 지리적 선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 기억과 망각, 폭력과 평온 사이의 층위들이다. 이세현은 경계 위에 서서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우리는 무엇을 보지 못하고 있는가?" 2. 이미지에 던져진 돌 - 시각적 개입과 역사적 상상력. 이세현의 작업에는 자주 등장하는 물질적 개입이 있다. 바로 사진 프레임 안에 '던져진 돌'을 배치하는 방식이다. 이는 <푸른 낮 붉은 밤>이나 <Episode> 연작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예컨대, <무엇이었을까(옛 국군광주병원)>나 <버닝(옛 국군광주병원)>에서 우리는 붉은 조명 아래 폐허가 된 병원의 복도를 마주한다. 정지된 시선 속에서 돌은 일종의 '시점/관점/견해의 간섭자'로 기능하며, 이미지 내부의 시간성을 붕괴시키는 매개물이 된다. 던져진 돌은 과거를 향한 폭력적 시선의 은유이자, 작가가 역사적 침묵을 깨고자 하는 '물리적 행위'로도 읽힌다. 우리에게 '치유의 역사학' 혹은 '정신분석학적 역사학'으로 소개된 도미니크 라카프가 말했듯 트라우마는 단지 사건의 기억이 아니라 '시간의 균열'이다. 이 돌은 그 균열에 던져진 질문이며 우리가 응답해야 할 윤리적 장치다. 3. 공간의 시적 구성 - <푸른 낮 붉은 밤>의 감각미학. <푸른 낮 붉은 밤> 연작은 공간을 빛의 감정 구조로 재구성한 작업이다. 이세현은 역사적 장소에 조명을 설치하고, 파란색과 붉은색이라는 상징적 색채로 폐허를 감싸안는다. 이 색채는 단순한 미장센을 넘어서, '애도의 조명'이자 '기억의 필터'로 작동한다. 예컨대 <오매광산>이나 <옛 광주 적십자병원 수술실>은 파란 조명 아래 섬뜩한 평정을 연출한다. 이 조용한 무대는 오히려 이미지 너머의 폭력성을 암시하며, 보는 이를 증인으로 소환한다. 이러한 작업 방식은 발터 벤야민이 말한 '충격'의 미학과도 접합된다. 이세현의 사진은 보이는 것을 전시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억압된 기억, 회피된 과거, 불편한 진실—을 감각화하는 전략이다. 4. 부재의 미학 - <상흔>과 장소의 응시. <상흔> 시리즈는 가장 직접적으로 폭력의 흔적을 추적한다. 노근리, 전남도청, 거창 양민학살 현장 등에서 발견된 총탄 자국은 이세현의 렌즈를 통해 확대되고, 정면으로 응시된다. 사진은 말없이 묻는다. "이 총알의 방향은 누구를 향했는가?" 총알의 흔적은 공간이 아니라 시간의 잔재다. 그 흔적을 응시하는 일은, 사진이라는 매체를 통해 '부재의 현존'을 가시화하는 일이다. 이세현은 말한다. "나는 그 장소를 통해 과거를 이해하지 않고, 현재를 질문한다."

이처럼 《상흔》은 단순한 장소 기록이 아니라, 윤리적 시선의 훈련장이다. 이세현의 사진은 미학이 윤리로 넘어가는 지점을 보여준다. 미학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응답 가능성'의 문제임을 드러내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다시 묻는다. 사진은 역사의 잔해를 담을 수 있는가? 이세현의 작업은 역사적 장소를 단순히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보게 만든다.' 그는 물리적 공간을 사회적 상처의 은유로 전환시키고, 사진의 시간성을 통해 과거의 부재를 현재의 감각으로 소환한다. 그 결과, 그의 사진은 단순한 미적 오브제가 아니라 '시각적 담론의 장'이 된다. 이세현의 작업이 품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은 이렇다. "우리는 과거를 어떻게 볼 수 있는가? 그리고 그것에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그 질문 앞에서 우리는 더 이상 관람자가 아니라 응답자로 서야 한다.

응답의 미학: 역사적 윤리와 시각적 증언

잔해 위에 세운 이미지, 혹은 역사의 파편을 응시하는 법을 보여주는 것이 이세현의 작업이다. "역사는 어떤 구성이나 구조물의 대상인데, 이 구조물이 설 장소를 형성하고 있는 것은 동질적이고 공허한 시간이 아니라 '현재시간(Jetztzeit)'에 의해 충만된 시간이다." (발터 벤야민, 《역사철학 테제》 제XIV 테제) 사진작가 이세현의 작업은 역사적 장소의 잔해를 응시하며, 과거와 현재 사이의 단절을 매만지는 일이다. 그는 단순히 어떤 과거를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재의 흔적' 위에 오늘의 시선을 비추어 현재로 발화하게 만든다. 이 점에서 그의 사진은 벤야민이 말한 "현재시간(Jetztzeit)"의 형식적 구현이다. 사진은 멈춘 시간이자, 동시에 과거가 현재를 관통하는 순간적 '파열'로 기능한다. 1. 역사란 무엇인가를 물으면서 연속성의 신화에서 파열의 장으로 향한다. 벤야민은 역사주의의 연속적 시간 개념을 비판하며, 진정한 역사의식은 '승자들의 승리'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억눌린 자들의 기억을 현재의 순간 속으로 비추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세현은 바로 이 기억의 정치학에 개입하는 작가다. 그의 카메라는 역사에서 배제된 공간(예: 505보안부대, 국군광주병원, 노근리, 거창, 코발트광산 등)을 선택하며, 그 장소가 보존하고 있는 '말해지지 않은 것', 혹은 '기억되지 않는 것'을 호명한다. 예컨대 《푸른 낮 붉은 밤》 연작에서 이세현은 버려진 병원 복도, 어둡게 꺼진 수술실, 총탄 자국이 남아있는 벽면에 조명을 켜다. 이 빛은 단지 시각화의 수단이 아니라, 시간의 틈새를 찢고 들어오는 "현재시간"의 은유이다. 즉, 작가의 개입은 장소의 물리적 재현을 넘어선, '과거의 비가시성'을 현재의 감각으로 복원하는 급진적 상상력이다. 2. 사진과 파편적 시간의 관계를 보여주면서 미학으로서의 역사 인식을 드러낸다. 사진은 본질적으로 시간을 정지시키는 예술이다. 그러나 이세현의 사진은 단순한 정지가 아니라, '중단된 역사'를 다시 소환하는 행위이다. 발터 벤야민은 역사를 파울 클레가 그린 '새로운 천사(Angelus Novus)'에 비유했다. "우리들 앞에서 일련의 사건들이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바로 그곳에서 그는, 잔해 위에 또 잔해를 쉬임없이 쌓이게 하고 또 이 잔해를 우리들 발 앞에 내팽개치는 단 하나의 파국을 바라보고 있다. 천사는 머물러 있고 싶어하고, 죽은 자들을 불러일깨우고 또 산산히 부서진 것을 모아서는 이를 다시 결합시키고 싶어한다. 그러나 천국으로부터는 폭풍이 불어오고 있고, 또 그 폭풍은 그의 날개를 꿈쩍달짝 못하게 할 정도로 세차게 불어오기 때문에 천사는 그의 날개를 더 이상 접을 수도 없다. 이 폭풍은, 그가 등을 돌리고 있는 미래쪽을 향하여 간단없이 그를 떠밀고 있으며, 반면 그의 앞에 쌓이는 잔해의 더미는 하늘까지 치솟고 있다." (발터 벤야민, 《역사철학 테제》 제IX 테제) 이세현이 사진에서 보여주는 것은 바로 이 '잔해의 시선'이다. 그의 사진 속에는 역사의 총탄 자국, 무너진 병원, 숲 속의 광산 입구, 사라진 마을(곤을동)이 등장한다. 이 공간들은 단순한 장소가 아니다. 이들은 말하자면 역사적 파편들의 집적지, 혹은 '응시되는 역사'다. 사진은 이 파편들 위에 '응시의 장(場)'을 구성하고, 관객은 이미지 안에서 역사적 윤리의 증인이 된다. 3. 이미지의 정치성과 윤리적 시선. 이세현의 작업에서 핵심은 '보는 방식'이다. 그는 폐허의 중심에서 돌을 던지고, 색채 조명을 설치하며, 카메라 시선을 정면으로 고정한다. 이러한 방식은 벤야민이 말한 "충격과 각성"의 미학과 깊게 연관된다. 그의 사진은 소비되지 않는 이미지, 감각적 충격을 일으키는 이미지, '기억을 발명하게 만드는 이미지'다. 다시 말해, 보는 자로 하여금 '과거를 회고'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역사에 응답'하게 만든다. 벤야민은 이렇게 말한다. "진정한 역사의식은 '억압받는 자들의 해방'과 연결될 때만 현실로 나타난다." 이세현의 사진은 비탄에 머무르지 않는다. 그는 침묵의 장소에 말을 걸고, 광장의 부재에 기억을 환기하며, 응시를 통해 역사적 윤리성을 구성한다. 이는 단지 과거에 대한 미학적 접근이 아니라, 기억과 응답의 정치학, 즉 오늘의 역사미학을 구성하는 실천이기도 하다.

역사미학의 급진성: 이미지로 응답하는 사유의 실천

이상을 요약하면 이세현의 역사미학— 이미지, 기억, 역사 —은 잔해로부터의 사유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세현의 사진은 역사적 기억의 불완전함, 부재, 침묵을 이미지의 방식으로 '현존'하게 만든다. 이는 발터 벤야민이 말한 "비상사태 속에 등장하는 메시아적 순간", 혹은 과거가 현재에 '번개처럼' 충돌하는 방식과 유사하다. 그의 사진은 시간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뒤흔든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앞에서 멈추고, 질문하게 된다. "이 잔해는 무엇을 남기고 있는가?" 혹은 "우리는 이 흔적에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이세현의 사진은 바로 그 질문을 가능케 하는 '역사철학적 미학'의 실천이다. 즉, 그는 사진을 통해 역사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다시 구성하도록' 관객을 초대한다. 역사의 부재를 마주하는 감각, 그것이 바로 오늘날 사진 예술이 지닐 수 있는 급진적 가능성이다.

은밀하고 사소한 기념비

글 : 최연하(사진평론가)

이세현의 사진 콜라주(collage)는 기억의 저장고이다. 한 장소를 수차례 찾아가 사진을 촬영하고 출력한 후, 500~1000 장 정도의 사진을 차곡차곡 붙여 가는 과정에서 장소의 기억과 작가의 행위는 중첩되고 교차하고 쌓여간다. 지난겨울에서 봄까지의 시간이 축적된 유일무이한 단 하나의 이 사진은 공터에 올라오는 봄의 풀들처럼, 자신의 기억의 뿌리를 대지(臺紙)에 내리고 있고 그것은 오직 ‘흔적’으로만 희미하게 존재한다. 말 없는 외관에 감추어져 있는 이 사진의 내적 생명은, 그것이 한 장소를 한 컷에 담은 스트레이트 사진(straight photography)처럼 보이지만, 대지(臺紙)와 함께 존속하는 풍경의 기억이 작가의 유희에 의해 창조된 ‘은밀하고 사소한 기념비’라는데 있다. 그런데 이 기념비(사진)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고, 인간의 기억의 한시성 때문에 ‘지속’되는 요컨대, 기념비로서의 기능을 제거하며 스스로를 제시하는 역설을 낳는다.

이세현은 전작인 <Boundary>시리즈에서, 돌을 내던짐으로써 찰나와 영원의 경계를 보여준 바 있다. 돌은 전통적인 기념비의 재료로 시간이 흘러도 손상되지 않는 것이다. 돌이 존속하는 한, 기억 또한 사라지지 않으리라는 영속성을 보장받는다. 돌은 지속성에 대한 헛된 인식을 화석화시킨다. <Boundary>시리즈에서 작가는 돌을 던지는 행위를 통해 모든 영속성에 대한 환영을 부정하고 오히려 돌의 찰나, 혹은 시간의 경계를 가시화했다면 <Somepoint>에서는 모든 순간의 접점을 콜라주한다. 도시의 공터와 가까운 교외의 풍경을 촬영한 사진을 오려낸 후 붙여나가는 이 과정은 선택과 조합에 따라 의미가 변주되는 다양체이다. 어떤 작품은 계속 진행 중이기에 (완결이 아닌 과정 속에서) 작품의 ‘어떤 지점(some-point)’만 드러낸다. 또는 풍경의 맥락에서 탈구되고 데페이즈망(Depaysement)에 의해 변형된 풍경들이 우연적이고 낯선 조합을 이루는데 이는 마치 왜곡되거나 삭제되고, 편집되거나 과장되는 기억의 처소처럼 보인다.

우리의 기억은 불안정하여 쉬이 변형된다. 보이지 않는 기억은 유령처럼 현실을 지배하기도 하고 망각의 강물로 휩쓸려가기에 기억의 장소를 찾기로 언제나 난제이다. 기억과 망각은 동형체로 서로를 원하고 서로의 빈자리를 메워 준다. 망각은 기억을 전제하고, 기억 또한 망각이 없이는 그 자리가 묘연해지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무엇인가를 ‘기억한다’는 것은 역으로 기억의 부재를 낳기도 한다. 이세현은 기억-기술(記述)의 방법으로 콜라주를 선택했는데, 이는 우발적이고 기형적인 기억의 형태를 표상하고자 하는 의도로 보인다. 작가는 세계의 흔적(인덱스)을 데스마스크로 떠내어 균일한 평면으로 옮겨와 마치 팔림프세스트(Palimpsestus) 같은 기억의 자장을 형성한다. 그 옛날 양피지에 지우고 쓰기를 반복했던 것처럼, 사진기록에 잠재되어 있거나 숨어 있는 기억이 흔적으로 기술(記述)되어 있기에, 그것을 해독하려면 ‘적극적으로 다르게 깊이 새롭게’ 보지 않으면 안 된다. 풀이 자라나기 전의 공터가 가진 기억, 풀뿌리와 이파리의 생몰년도, 바람의 방향과 햇살과 햇별의 양, 해 질 녘의 석양의 스침과 구름과 비의 두께 등 풀에 스민 기억들도 썼다가 지워지는 양피지처럼 비가시적이기 때문이다.

그간 사진 이미지의 새로운 실천을 개진해온 이세현에 주목하게 되는 것은 이 은밀하고 사소한 사진 행위 때문이다. 대개 사진은 프레임 안에서 제한적인 의미만 생산하고 소비되어왔다. 특히 디지털 이미지 저장 장치가 보편화 된 오늘날에는 사진이 인간의 기억 능력의 한계를 드러내는 알리바이가 돼 버렸고, 이 지독한 딜레마는 사진 이미지의 범람과 이미지의 맹목을 낳았다. 이세현의 소소하고 반복적인 사진행위들은 단순히 사진이 과거의 사실들을 흡수하고 재생하는 수동적인 대상이 아니라, 상호 주체적이고 대화적인 행위임을 보여준다. 이는 기억이나 기억의 형성에 대하여 지배 이데올로기와 거대한 시스템이 제시하는 근거에 흠집을 내는 역기념비(Counter-monument)라 할 만하다.